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 개최(3.15.)

-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과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신설 -
 - 해양의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 해양경제, 해양환경, 해양안전·안보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 강화 모색 -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ROK-Viet Nam Maritime Dialogue)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쩝 득 하이(Trinh Duc Hai) 외교부 국가국경위원회 부위원장의 공동 주재로 3.15.(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한-베트남 해양 대화는 작년 6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행동계획」에 명시된 해양 관련 실질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작년 11월 개최된 「제5차 한-베트남 차관급 외교안보 전략대화」에서 신설에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 필리핀에 이어 이번에 베트남과 3번째로 양자 해양 대화를 출범하게 되었다.

이번 해양 대화에 우리측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군 본부, KOICA, 베트남측은 외교부, 국가국경위원회, 국방부, 환경자원부, 농업농촌개발부 등에서 약 30명의 관계관이 참석하였으며, 양측은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인 해양개발·이용을 위해 ▲해양경제, ▲해양환경, ▲해양안전·안보 ▲지역·다자 해양 현안 등과 관련한 양국 간 주요 정책 및 협력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한-아세안 간 해양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 계기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해양 관련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해양경제 및 해양환경 분야에서, 우리측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수산업, 해양환경 보전, 인재양성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청색경제 선도전략을 소개하고, 이러한 전략 하에 베트남과 호혜적 해양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베트남측은 베트남의 국가 해양전략인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 사용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2030 목표 및 2050 비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히 해운 등 해양산업, 항만 개발, 수산 및 양식업 생산성 향상, 해양 인력 양성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였다. 또한, 양측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분야에서 협력 촉진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 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하였다.

해양안전·안보 분야에서, 규칙에 기초한 평화로운 해양질서 구축이 해양 국가이자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과 베트남의 이익에 직결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훈련 및 수색·구조 등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유엔해양법, 해양과학 및 기술 등 분야의 양국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관심사를 공유하였다.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관련 현안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특히 해상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활동 동향을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해상 분야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핵심 해상교통로로서 남중국해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확보되고, 국제법에 기반한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과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차기 제2차 한-베트남 해양대화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은 한-베트남 해양대화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지역 실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해양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로 하였다.

첨부: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 개최 사진. 끝.

담당 부서	아세안국 동남아2과	책임자	과 장	한영희	(02-2100-8593)
		담당자	서 기 관	박은성	(02-2100-8594)